

“배움 갈증 느끼는 학생 위해 교육기부 꾸준히 할 것”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수상한 조선대 김현우 교수

지역 프로그램 연계 재능기부센터 설치...가르칠 기회까지 ‘1석2조’

손이 닿지 않는 체육·예술 교육 사각지대를 직접 찾아다니고, 교육을 원하는 이들에게 위해 선한 영향력을 펼친 광주의 한 교수가 있다. 주인공은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체육교육과 김현우 교수.(사진)

김 교수는 교육 기부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최근 서울아라야아트센터에서 진행된 ‘제 11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대상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상을 수상했다.

김 교수가 교육기부를 시작하게 된 것은 지난 2018년 체육예술교육기부거점대학으로 조선대학교가 선정되면서다. 총괄 책임을 맡은 김 교수는 교육기부 거점대학을 운영하며 체육·예술 관련 활동을

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체험하지 못했던 많은 학교들의 교육기부에 대한 갈증을 느끼게 됐다.

이에 더 많은 이들에게 교육 기부를 제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김 교수는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 재능기부 센터를 만들었다. ‘직접 현장에 나가서 교육 기부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학교에 요청했고 이후 본격적인 김 교수의 교육기부 활동이 시작됐다. 또 교양과목으로 ‘지역사회 교육기부 프로젝트’ 과목을 개설해 운영했다.

지역사회 예술·체육 명사와 함께하는 진로력커뮤니티에는 양곡선수 기보배, 장흥준 영화감독, 각종 예술·체육 전문 교수들을 초청했다.



로 무작정 함께하는 것이 아닌 교육 기부를 수혜받는 이들의 나이와 특성, 수준 등을 세심하게 고려해 직접 하나하나 매칭해 선별한 뒤 진행한다.

또 교육기부 교양 수업은 수강생들이 전공하는 각 분야의 강사로 나서 현장에서 직접 가르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선대학교 체육대학원 학생들의 도움으로 일일 체육선생님이 되어 학교를 찾아가기도 했다. 체육과 재학생 명목으로 “선수로 활동하는 친구들 위주로 축구와 농구, 배구, 양궁, 육상 등을 가르칩니다. 처음에는 주춤하며 주춧대던 대학생 친구들도 막상 여러번 함께하면 조금씩 가르치는 실력이 느는 게 느껴져요. 학생들이 가르칠 기회가 없는 대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교육 기부를 받는 친구들도 보다 전문적인 학습을 할 수 있어 1석2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는 아직도 광주·전남에는 교육 기부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다고 말한다.

“1년 365일 함께해도 부족한 교육 기부입니다. 아직도 배움에 갈증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느끼면서 교육 기부는 포기할 수 없는 일이 됐습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교육기부에 대한 인식도 바꾸고 가르침에 함께했던 친구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도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할 수 있도록 오래도록 힘쓰겠습니다”

/김디나 기자 kdi@kwangju.co.kr

오늘의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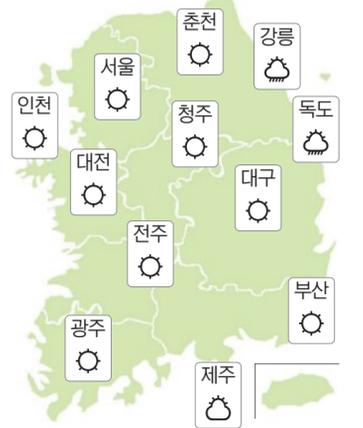
해돋이	06:40	달뜨기	23:09
해지기	17:55	달지기	13:34

외투 챙기세요

북서쪽 찬공기가 유입돼 최고기온 17도 내외로 쌀쌀하겠다.

광주	맑음	13/16	보성	맑음	13/17
목포	맑음	14/16	순천	맑음	15/19
여수	맑음	16/19	영광	구름많음	13/15
나주	맑음	12/17	진도	맑음	14/16
완도	맑음	15/17	전주	맑음	11/16
구례	맑음	14/17	군산	구름많음	11/15
강진	맑음	14/17	남원	맑음	12/16
해남	맑음	14/17	홍산도	구름많음	14/15
장성	맑음	12/16			

◇ 전국 날씨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파고 (m)	파고 (m)	파고 (m)	파고 (m)
서해남부	앞바다	1.0~3.5	1.5~3.5		
	면바다(북)	2.0~4.0	2.0~4.0		
	면바다(남)	2.0~4.0	2.0~4.0		
남해서부	앞바다	1.0~3.0	1.0~3.0		
	면바다(서)	2.0~4.0	2.0~4.0		
	면바다(동)	1.5~3.5	2.0~4.0		

◇ 물때

목표	간조		만조	
	11:14	---:--	06:03	19:10
여수	06:28	20:04		
	13:41	---:--		

◇ 생활지수

식중독	자외선	미세먼지
낮음	낮음	보통

◇ 주간 날씨

18(화)	19(수)	20(목)
☀	☀	☀
7/15	5/17	6/21
21(금)	22(토)	23(일)
☀	☀	☀
9/21	11/21	10/20

전남대학교 70주년 기념 법대·법전문원 총동창회 ‘홈커밍데이’ 성황

대학 발전상 소개...우윤근 전 의원 등 150여명 참석



전남대학교 개교 70주년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홈커밍데이 행사

전남대학교 법대·법전문원 총동창회(회장 최병근 81학번)는 지난 14일 ‘전남대학교 70주년 기념 법대·법전문원 홈커밍데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사진)

이번 전남대학교 법대·법전문원 홈커밍데이는 우윤근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전국의 각계 각층에서 활약하고 있는 전남대 법대·법전문원 출신 동문들을 통해 대학의 발전상을 소개하고 선·후배, 교수들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교 70주년을 맞이해 개최된 이날 홈커밍데이 행사에는 정성택 총장과 조성현 총동창회 회장, 이기홍 변호사(법대 1회, 53학번)를 포함해 내빈 및 동문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다가오는 연말 구 법대건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법전문원 건물이 들어서게 됨에 따라 동문들은 추억이 어린 구 법대 건물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는 등 추억을 회상하기도 했다.

행사는 최병근 법대·법전문원 회장의 축사, 기념 영상 시청, 내외빈 소개 및 축사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으며 모교 발전기금 및 장학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최병근 법대·법전문원 회장은 축사를 통해 “60여년 전통에 빛나는 전남대학교 법대·법전문원 동창회는 진리·창조·봉사라는 전남대학교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인권이 존중되고 정의가 구현되는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1000여명이 넘는 법조인을 배출하고 정치, 행정, 금융, 사기업 등 다양한 직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성과를 보였다”며 “전국 어디에서 어느 직역에서 활동하던 우리는 용병의 꿈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온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온 가족이 함께 신나는 ‘애플B 가족 운동회’ ...“소중한 추억 만들었어요”

안전교육 후 이벤트·경기 다채

완연한 가을을 맞이해 애플B 유치원(원장 최봉훈)이 16일 오전 10시 서구 빗고을 체육관에서 온가족이 함께하는 ‘애플B 가족 운동회’를 열었다.(사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이번 행사는 가족 레크리에이션 등 한바탕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경기들로 마련됐다.

애플B활동복을 입은 원아들과 소중한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함께한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체육관은 금세 운동회장을 찾은 이들로 가득찼다.

운동회의 막을 올리기 앞서 가족들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알리기 위해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어 전체 입장식, 개회선언, 성화봉송 등 개회식을 통해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1부와 2부로 나뉜 행사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모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부의 첫 행사로는 준비운동 파파야 댄스로 신나는 춤을 춘 뒤 ‘날아라! 대왕풍선’, ‘볼볼공 눈싸움’, ‘바스켓 농구’, ‘추억의 박 터뜨리기’, ‘협동 줄다리기’ 등 애플B 유치원이 준비한 게임을 이어갔다. 아이들은 함차게 응원하고 온 힘을 다해 경기에 참여하는 등 소중한 추억을 쌓았다.

2부 순서로 마련된 행운권 추첨과 게임은 부모님이 참여하는 본격적인 행사로 소외된 이들 없이 함께했다.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하는 ‘추억의 달리기 왕 선발전’과 조부모님과 임마가 참여하는 게임, ‘아빠 당구 한게임 하시죠’, ‘역전 이어달리기’ 등이 펼쳐졌다.

무엇보다 가족 운동회를 위해 마련된 ‘최다 가족 선물’, ‘행운권 추첨상 선물’, ‘조부모님 선물’ 등 다채로운 선물도 아이들과 가족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 애플B유치원은 체육관 입구에서 ‘2022 애플B나눔행사’ 불우이웃돕기를 위한 커피, 딸기리테 등을 판매했다. /김디나 기자 kdi@kwangju.co.kr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SC제일은행 빌딩 9층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21 FAX 062-222-4938, 222-4918

화촉

▲차명수(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박인숙씨 딸 희원양=29일 라마다 서울 신도림호텔 5층 그레이스룸

알림

▲광주 북구민을 위한 개인 무료 법률상담소=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영세민, 고교 소 북역자, 사회취약계층자 무료상담 010-6444-8572.

▲광주시·전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무료 상담=코로나19 등 각종 재난으로 심리지원을 위한 무료상담 1670-9512.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료 취업프로그램 신청=취업상담, 직업훈련, 일자리알선, 취업교통비 지원 등 취업지원 및 긴급원호, 숙식제공,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

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청소년전화 062-1388=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시간 전화상담.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노인학대 신고-연제든 노인학대로 힘들어 하고 계신 분들, 노인학대를 목격하시거나 알게 되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 24시간 전화상담 1577-1389.

▲광주북구중독관리센터 무료 상담&주간프로그램 운영=알코올, 인터넷, 도박, 약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대상 062-526-3370.

▲북구열린마음 상담센터 무료상담=정신건강&중독 무료상담(음주·우울·불안·스트레스·치매·인터넷) 지역주민 누구나 참여가능 062-526-3370.

▲광주남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중독문제(알코올, 니코틴, 인터넷, 약물, 도박)로 고민하는 대상자와 가족에게 무료 상담,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062-413-1195.

▲광주서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마음건강강추치 의운영=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를 통한 중독·자살·우울 문제 등 매주 수·금요일 오후 2시~5시 무료 상담 062-654-3802.

▲비영리민간단체 노후를 돕는 사람들 노후생애를 위한 무료교육=50세 이상 중장년층 남녀 15기 모집 주 3일(월·수·금) 1일 2시간씩 6개월간 진행. 영어, 심리상담, 생애설계, 노래, 댄스, 명심보감 등 진행. 062-223-1357.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층,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장의입관용품무료지원, 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

~금 오후 5~9시 사랑마루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열린 마음 상담센터=북구지역 5개 아파트 단지 내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위한 무료 상담소(우울, 불안, 치매,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약물, 도박, 인터넷 등) 062-525-1195.

▲플랫폼창업희망자 교육생 모집=스마트폰 사용 가능자 수시모집, 5~6명 이면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플랫폼창업동호회 062-511-0030.

▲신창동 보은사 목련합창단 단원모집=성악 또

는 찬바람 배우기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남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정기연습, 신창동 대광로제비앙아파트 후문 80미터 010-4622-7838.

▲정보기술분야 직업훈련생 모집=15세 이상 장애인 대상.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전산 사무행정. 교육기간 1년. 교육비 무료. 훈련수당 지급. 전남직업능력개발원 061-320-7024.

▲시니어플래너지도사(자격반) 모집=사·군·구 지부모집, 한국치매예방교육원 광주전남지사 010-5522-9700.

▲인생이모작 카운슬러 모집=인생2막 생애재설계, 은퇴 신중론 상담에 관심 있거나 교육경험이 있는 48~58세 남녀 모집, 실버체조, 치매예방 놀이, 노후생활 관련 강사 등, 한국50+ 희망발전소 010-2626-5018.

▲꿈을 돕는 사람들(광주학당)=한글, 기초반, 초등반, 중등반, 영어기초반, 한문, 컴퓨터 등 수시모집(무료강의), 서방시장 안쪽 관리사무소 옆 062-512-5788, 062-262-1542.